

北미사일, 日 군비강화 악용 차단

청와대, 日 '선제공격론' 강력대응 배경 동북아 긴장 의도적 증폭 판단 한반도 평화 중대 위협 간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식을 둘러싼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일본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제출과 '대북 선제공격론' 공론화를 계기로 양국간 외교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9일 일본의 미사일 대응을 '군비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야단법석'으로 규정하자, 이에 일본 각료들이 반박하며 오히려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청와대가 11일 이를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선제공격론' 강력 대응 배경=청와대가 11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공격론'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번 국면을 틈타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군비확장과 군사대국화의 발미로 삼으려 한다고 보고,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분석이다.

일본 각료들의 잇따른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한 대응 문제가 논의된 이날 상황점검회의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사실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의 정당성' 공론화 시도에 대해 "도발적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청와대가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이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북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발미로 '선제공격론'까지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로 가려

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로선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언급한 점도 청와대가 일본의 선제공격론을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일본측 반박과 '선제공격론' 공론

화=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박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10일 청와대 브리핑에 대해 "그런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고, 일본으로서의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일본이 위기관리 대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아베 장관은 더 나아가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까지 들

고 나왔다. 그는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제공격론 공론화를 시도했다.

언어어 누가 후쿠시마(福崎) 방위청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도 같은 날 일제히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일본의 자위권에 해당한다는 '위협적인'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지난 10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 옆은 존 볼튼(왼쪽)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 주재 영국 대사. /연합뉴스

냉랭한 분위기속 악수만...

北대표단 도착 남북장관급회담 개막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1일 부산에서 예정대로 열려 3박4일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북귀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권호용 내각 책임참사가 이끄는 북측 대표단 29명은 이날 오후 고려항공 전세기편을 타고 평양순안공항을 이륙, 동해직항로를 거쳐 오후 3시 56분께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바로 숙소인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북측 대표단의 참가 여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을 낳았던 이번 회담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트랩에서 내린 뒤 마중 나온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 우리측 대표단과 악수했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긴장된 정세 탓인지 양측 모두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기 어려웠고 분위기가 냉랭해 보였다.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북측 대표단은 비가 오는 가운데 입국장을 거치지 않고 할주로 옆에 대기 중인 차량에 분승한 뒤 바로 호텔로 향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누리마루

APEC하루스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남북은 둘째 날인 12일 오전 누리마루APEC하루스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기초발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하며 상황에 따라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 된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북한이 지난 5일 대포동2호는 물론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따지는 동시에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쌀 차관 50만 톤 제공과 비료 10만 톤 지원 등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협력현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유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양측은 셋째날인 13일 오후 종결회의를 갖고 북측 대표단은 14일 오전 10시 전세기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中, 北 6자회담 끌어내나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 미국, 중국의 움직임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의장격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10일 후이랑위(回良玉) 부총리가 이끄는 친선대표단과 함께 평양으로 들어가 11일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11일 갑자기 일본 도쿄(東京)에서 베이징(北京)으로 발길을 돌렸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 도착, "(중국측) 요청을 받고 왔다"면서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단계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우 부부장과 김계관 사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

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곧바로 전문으로 베이징으로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측 고위인사와 힐 차관보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따라서 평양에서 합의된 내용에 미국측이 동의하면 자연스럽게 6자회담의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이미 중국은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에 6자회담 비공식 회의 개최를 제의한 바 있다"면서 "북한이 동의하면 이 회의는 언제든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식 회의가 열릴 경우 시기는 17일부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28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소는 중국 베이징이나 선양(瀋陽)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국은 '6자회담 붕괴 방지' 등 대북(對北) 제재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일본 정부에 제시하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철회를 요청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1일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인용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제재결의가 통과되면 6자회담 프로세스가 완전히 무너져 북한이 일일 협상에 응하지 않는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2가지 이유는 '유엔 안보리 분열 회피'와 '북한 고립화 회피'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제재를 수반하지 않은 의장서명이라며 "강력한 비난도 용인하겠다"며 양보할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제재를 철회하지 않은 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이에 앞서 10일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토록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일본 관리들을 인용,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이러한 두 가지 조건에 합의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중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기아자동차 선수단의 호남 권역 우승을 축하합니다

지역우승보다 기쁜 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IMPERIAL AGED 12 YEARS



임페리얼컵 제 8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대회일정 2006년 8월 ~ 2006년 11월 ▶주최 전국 생활체육, 스포츠 조직 ▶주관 국민생활체육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주최 국민생활체육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스포츠 조직 ▶주최 국민생활체육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주최 국민생활체육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韓 “섬유 관세철폐” 美 “쌀 더 개방”

한·미 FTA 2차 협상 이틀째 오늘 반대 인간띠 잇기 행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인 11일 양측은 섬유시장과 농산물시장을 연계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은 미국내 섬유시장의 실질개방을, 미국은 우리의 농산물과 의약품 시장의 개방확대를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우리 대표단은 1차 협상에 이어 섬유·의류제품의 예외없는 관세양해와 관세의 조기철폐를 적극 요청하고 원사에 따라 섬유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Yam Forward)' 원칙을 토대로 한 미국의 원산지 기준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미국은 농산물시장 개방폭과 농산물·섬유에 대한 품목별류 등 양허안의 틀을 어떤 식으로 짤지에 대한 협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상품별로 양허단계를 다르게 하되 우리 입장에서 섬유분야는 빨리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쌀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쌀을 양허대상에서 빼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

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AT제도를 미국정부가 직접 개입해 광장하게 될 경우 국내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용서비스의 경우 각각의 상품별로 금융당국이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신용서비스는 상업적 주제가 있어야 하고 법률 제정정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도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문제와 관련, 소매금융은 국경간 거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이 미국 LA지역 한국동포를 상대로 소매금융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양측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등 메이커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와 관련, 양측은 '순 원가법' 등 다양한 방식을 비교해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김종훈 대표는 "노동·환경문제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를 통해 노동과 환경관련 법률집행에 강제성을 높이는 게 미국측의 의도"라면서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환경과 노동기준의 엄격한 집행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책본부는 12일 농민·노동자 등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청와대를 포위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12일은 범국민이 FTA 반대 총궐기의 날로 정한 날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